

모기업 협력업체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

이경용 · 이관형 · 손두익 · 오지영 · 갈원모* · 신문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서울보건대학 안전시스템과 · **한국안전환경연구원

1. 서 론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주된 노력이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경영여건 등 제반사유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자율적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현재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납품업체 또는 하청업체로써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산업재해는 대기업에서 필요한 부품의 납품지연이나 생산차질로 연계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청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보건 문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에게 있어 생산활동에 중요한 관리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모기업과 협력사간의 기업 연결망과 협력사의 열악한 경영조건을 고려할 때 모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지원은 더욱 절실하다. 국가 차원에서도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를 통해 국가 전체의 재해율 감소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모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생산활동 패턴이 협력업체의 작업분배가 대폭 증가하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기계장치의 설치, 검사, 수리, 제품조립, 포장, 운송, 부품생산 등 제반작업이 외부 협력업체에 위임됨에 따라 협력업체 작업자의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주업체(대기업)의 발주시 작업상의 안전 고려, 협력업체 측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실행, 발주업체와 협력업체간의 산재예방활동에 있어서의 공조체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청 협력업체는 2차, 3차 하청 등 하청 중층화라는 문제가 있으며, 미경험, 미숙련 근로자가 많고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식, 능력, 안전에 대한 관심 및 의욕 등의 결여로 모기업에 안전관리 의존도가 높다.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단독 기업이 모든 생산활동을 자족적으로 꾸려나가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기업활동의 많은 부분들을 외부화하고 있어 기업간 연결망 구조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기업만의 단독적인 안전보건관리방식보다 기업간 연계된 안전보건관리 모델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하청구조 속에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로 인한 생산활동의 외부화가 더욱 증가되고 있어 모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전문 담당자들이 모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상호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요구도와 지원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 조사 대상 사업장은 전기전자업종의 모기업과 해당 모기업의 협력사로 선정하였다. 모기업과 협력사간의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조사 대상자는 모기업의 경우 안전보건팀의 직원들 중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협력사의 경우 협력사 대표와 안전보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조사의 내용은 모기업과 협력사간의 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반 요구도와 실태 및 정책적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하였다.

3. 연구결과

1) 모기업-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

(1) 모기업 안전보건담당자의 인식

모기업의 안전보건 담당실무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모기업과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87.5%가 사내협력사를 중심으로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사내협력사 중심의 협력사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사외협력사는 상대적으로 지원활동이 낮았다.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지원활동은 주로 전담부서의 부나 팀 단위의 조직적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9%). 모기업과 협력사간의 안전보건관리활동의 연계는 모기업 경영자의 관심이 없으면 실천하기 어렵다. 모기업 안전보건 실무자들이 응답하고 있는 경영자의 관심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전체 응답자의 87.5%가 경영자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었으며, 관심이 높고 적극적인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62.5%로 조사 대상 모기업의 경영진은 협력사에 대한 지원활동에 관심과 실천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모기업과 협력사간의 안전보건관리의 연계는 주로 모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모기업과 협력사간의 수직적 기업연결망 관계를 고려할 경우 이러한 관리 중심축이 모기업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협력사의 안전보건 문제를 모기업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본 결과 응답자의 50%가 협력사의 산재자료를 보고 받아 분석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으며, 자료를 보고 받지만 원인분석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12.5%였다.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지원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력사의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수시로 개선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기업 안전보건 실무담당자들이 응답한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지원활동에 대한 평가 방법의 분포를 보면 응답자의 62.5%가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지원활동이 있을 때마나 수시로 평가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전체의 25.0%였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혹은 사업이 있을 때마다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87.5%나 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평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기업 수준에서 안전보건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산업재해의 원인에 대한 관리일 것이다. 응답자의 57.1%는 산업재해의 주요 요인으로 근로자의 주의의무 소홀에 따른 불안전행동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28.6%는 안전장치나 시설측면의 미흡을 주요 원인으로 응답하였으며, 관리 미흡을 주요 원인으로 응답한 경우도 14.3%였다.

모기업과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안전보건에 관련된 제반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응답된 내용을 보면 정보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61.1%로 가장 많았으며, 강사와 교육내용의 교류로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33.3%였다. 협력사와의 정보를 교류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내용의 종류를 알아본 결과 모기업 안전보건 실무 담당자들은 안전수칙 등의 근로자 작업안전에 관한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50.0%였으며, 위험설비 등의 위험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22.2%였다.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지원은 협력사로 하여금 안전보건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안전마일리지제도 도입을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37.5%였으며, 우수협력사 표창제도와 불량 협력사의 입찰제한 및 퇴출제도를 응답한 경우가 각각 전체의 25.0%였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모기업이 협력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 증대를 위해 협력사의 납품과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제한 조치나 표창 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모기업과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는 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는 전략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에서 협력사가 자율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나타날 수 있어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모기업 안전보건 실무담당자들이 지적하는 중요한 요소는 모기업의 협력사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즉 점검이나 검사 혹은 측정 등의 사업을 모기업이 적극 지원함으로써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50.0% 응답),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안전보건 실무 담당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전체의 38.9%가 응답하였다.

또한 모기업과 협력사의 종합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 응답된 항목의 분포를 보면 모기업 재해율에 협력사의 재해율을 포함하거나 협력사 재해 발생시 충분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건과 적극적인 상담과 시설지원, 그리고 전담조직을 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법규의 강화 및 업종별로 차별화된 전략적 지원 등을 들고 있다.

(2) 협력사 대표

협력사의 대표는 모기업과의 하청관계에서 생산활동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협력사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모기업과의 하청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기업연결망의 주요 담당자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모기업과 협력사간의 안전보건관리에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협력사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해 모기업이 지원해주길 바라는 지원사항으로 가장 많이 응답된 항목은 안전보건 정보 연결망으로 전체의 25.5%가 응답하였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보인 항목은 안전보건교육 지원으로 전체의 23.6%가 응답하였으며, 모기업의 안전보건 상담 및 위험설비에 대한 자금지원의 경우 각각 16.4%의 응답을 보였다. 또한 안전점검이나 자체검사 등 사업을 직접 지원해주길 원하는 응답도 다른 항목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이들이 생각하는 근로자 측면에서의 안전보건 개선요망 분야는 각종 위험관리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교육으로 전체의 47.3%가 응답하였으며, 주의집중 등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전체의 32.7%를 차지하였다.

협력사 대표들이 원하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지원 사항을 보면 기술지도의 필요성에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34.5%, 무재해 달성 사업장에 대한 혜택 부여를 응답한 경우도 34.5%였으며, 합리적 규제 강화를 응답한 경우도 16.4%였다. 협력사의 안전보건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모기업이 협력사의 점검이나 검사 측정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66.7%로 가장 많았으며, 협력사의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특화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전체의 22.2%였다.

협력사 대표들이 응답한 협력사의 개선이 필요한 안전보건활동은 안전보건교육이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위험설비에 대한 검사와 점검 그리고 세 번째는 소음 분진 등의 작업환경 개선 그리고 네 번째는 안전장치의 시설보완 등이었다. 또한 모기업이 협력사를 지원하는데 있어 절실히 필요한 개선책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항목은 모기업의 안전보건관리비 제도였으며, 전담인력의 추가 확보도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보였다.

(3) 협력사 안전보건담당자

협력사 안전보건 담당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모기업과 협력사간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보면 우선 모기업의 핵심사항이 협력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주기적으로 교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42.9%였다. 본 조사 응답자들이 종사하는 협력사의 경우 모기업과의 안전보건 연계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력사에서 안전보건활동을 할 때 장애가 되는 사항은 법 규정에 대한 이해와 준수로 응답하고 있는 비율이 약 1/3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모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할 지원 사항으로는 안전보건교육이 가장 많은 30.4%를 차지하였다. 또한 협력

사의 안전보건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운동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시설 및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전체의 36.4%를 차지하였다. 협력사의 안전보건담당자로서 산재자료를 모기업에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1.8%였으며, 간헐적으로 제출한다는 응답이 23.6%였다. 이 점으로 보아 조사 대상 협력사와 연계된 모기업이 협력사의 산재 관련 정보를 상당부분 제공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기업과 협력사간의 안전보건 관련 정보 교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안전수칙 등 근로자의 작업안전분야로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인 56.1%였다. 또한 모기업이 협력사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 절실히 요망하는 개선책은 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신설로 전체의 52.6%를 차지하였다.

<표 1> 협력사 안전보건 관리 활동의 활성화 요소 단위: 명(%)

구 분	협력사 안전보건관리 활성화 요소				계	P-value
	정부의 안전보건정책	협력사 활동지원	안전보건 스태프의 고용	안전보건관리 대행 제도		
협력사관리자	9(15.79)	27(47.37)	7(12.28)	14(24.28)	57(100.0)	26.04*
협력사대표자	12(22.22)	36(66.67)	1 (1.85)	5 (9.26)	54(100.0)	
모기업관리자	0(0.00)	4(50.00)	4(50.00)	0 (0.00)	8(100.0)	

* p<0.01

<표 2> 모기업의 안전보건 중 협력사와의 정보교류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단위: 명(%)

구 분	정보교류 내용					계	P-value
	산재처리	위험 정보	산업보건	작업안전	교육상담		
협력사관리자	7(12.28)	9(15.79)	3 (5.26)	32(56.14)	6(10.53)	57(100.0)	19.98*
협력사대표자	16(29.09)	18(32.73)	1 (1.82)	12(21.82)	8(14.55)	55(100.0)	
모기업관리자	1(12.50)	3(37.50)	1(12.50)	3(37.50)	0 (0.00)	8(100.0)	

* p<0.01

<표 3> 모기업의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절실히 요망되는 개선책 단위: 명(%)

구 분	모기업의 협력사 지원 개선제도				계	P-value
	전문인력의 추가 확보	PQ심사· 유사한 협력사 선정시 안전보건 활동평가 비중강화	모기업의 안전보건관리비의 제도신설	노사정책 및 제도 신설		
협력사관리자	5 (8.77)	6(10.53)	30(52.63)	16(28.07)	57(100.0)	17.08*
협력사대표자	14(25.45)	5 (9.09)	28(50.91)	8(14.55)	55(100.0)	
모기업관리자	5(62.50)	0 (0.00)	3 (37.50)	0 (0.00)	8(100.0)	

* p<0.01

2) 모기업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 연계 방안

모기업과 협력사간의 종합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모기업과 협력사의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며, 현장에서는 위험패트들과 같은 점검 감시팀의 운영을 통해 긴밀한 안전보건상의 협력체계를 실천하여야 한다. 또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기업으로 하여금 협력업체의 재해감소 목표를 부여하도록 하거나 협력사의 재해율을 관리하도록 하여 협력사와 모기업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협력사의 최고경영자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점검의 날과 같은 행사를 통해 공동의 안전보건 점검을 추진을 통하여 협력사의 안전보건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모기업이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우수협력업체에 대한 육성과 관리감독의 강화를 위해 발주를 적정화하고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는 방안과 안전보건수준의 등급화 및 협력사의 안전보건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지원과 대출보증 등의 간접적인 지원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모기업과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 연계 실천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을 포함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경영 우수사업장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 전개, 모기업과 협력사간의 종합안전보건관리모델 개발 및 보급, 안전보건 기술지도, 교육, 자금 등의 지원과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모기업과 협력사간의 연계된 안전보건관리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모기업과 협력사의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의 연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주로 알아보았다. 전기전자업종에 제한된 조사이므로 본 조사 결과를 다른 업종에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며, 특히 특정 업종의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 조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수준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우선 모기업과 협력사간의 연계된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모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며, 이러한 지원체계는 모기업과 협력사간의 기업간 연결망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협력사는 모기업의 생산활동에 의존적이며, 특히 기업활동에 필요한 제반 자원 동원의 수준을 보더라도 협력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 결국 협력사에 대한 모기업의 지원은 모기업의 확대된 생산활동의 성격과 모기업의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조사 결과 모기업의 안전보건담당자와 협력사 대표 및 협력사의 안전보건담당자들이 필요로 하는 연계 활동의 내용은 순위의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정보와 교육 및 자금지원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